두 예수, 두 믿음

(마27:11-26)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예수, 두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 속에 쓰여 져서 이천 년 동안 교회에 의하여 읽혀온 구절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 선민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살인자요 강도요, 소요사건에 관련되었던 바라바를 놓고 선택을 하는데, 그 강도요 살인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으실까?
단순히 바라바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분으로 일컫습니다.
4대 성인 중,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와 공자의 죽음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탄압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거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부당한 재판을 거치는 과정이 비슷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18세기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 중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m 60 1m 30 정도 크기의 그림인데, 그 그림 안에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12명의 등장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오른손을 치켜들고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자기의 동료와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한 자기의 철학적 사상을 피력합니다.

혼자만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나머지 열 한 명은 멀리 가까이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애통하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독배를 마셔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소크라

테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는 플라톤이 그 스승이 독배를 건네받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있던 크리톤이라고 하는 제자는 무릎에 손을 얹어놓고 소크라테스에게 지금이라도 이 부당한 재판을 수용하지 말고 국외로 피신할 것을 권면하면서 애절한 표정으로 소크라테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독배를 건네는 간수조차도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재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테네 정부요인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재판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지도자들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이유가 다른 신을 전하고 청년들을 도덕에서 이탈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고발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부의 지도자들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강도, 살인자를 원할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고 - 단순히 포기만이 아닌 십자가 극형에 처해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 참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인 빌라도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어찜이뇨? 도대체 이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십자가에서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하는 선민의 믿음의 상태, 이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참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 있는데 신약성경의 사본이 여러 개예요, 그중에 시리아 역본이라든지 교대교부의 문헌이라든지 아도스 사본 같은 데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쓰여 있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그 유대사회에서 흔히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바라바 예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칭호가 붙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본에서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와 '아바'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이름이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바라바 예수, 이 세상 혈육의 아버지의 아들인 그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구원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와 바람이 바라바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라바예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의미상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참 이 본문이 묘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하고, 바라바예수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예수를 원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빌라도도 원하지 않고 대제사장도 원하지 않고 백성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에요.
예수를 원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갈을 합니다, '내가 꿈에 이 옳은 사람 때문에 아주 애를 태웠

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관여하지 말라'

참으로 이 말이 모순이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아내가 알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편을 들거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개입하지 말라,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말라, 그 사람이 옳은데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 때문에 꿈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대제사장들도, 유대백성들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강도 살인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괴로움을 당합니까? 여자의 직감이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잘못이 없는 옳은 사람을 만나고 그와 같은 배를 타게 될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부의 아들을 믿게 될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별하는 것과 같이, 상실하는 것과 같이, 놓아버려야 되는 것 같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실제로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들이 죽어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서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이분, 잘못이 없는 이분에게 마음을 실었다가는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로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옳은 사람, 잘못이 없는 이 사람과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옆에 두고 여전히 지금의 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려면 강도를 옆에 두어야 됩니다.
살인자를 옆에 두어야 되지, 옳은 그분을 옆에 두었다가는 다 잃어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천지만물 가운데에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백합화에도 닿고 있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나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사랑할만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공간을 구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게도 마음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바라바와 그리스도예수 중에서 선택을 하라,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의 의미와 상통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몸을 입고 세상을 접합니다, 몸을 통해 접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사랑할만한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도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도 내 일도, 내 인생도 사랑할만합니다.
사랑할만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으로 자신을 세우십니다.
사랑할만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면 거기에는 선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천국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을 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인격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에서 몸을 통해 접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세상에 좋고 사랑할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 물음의 과정이고 그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이 세상에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이고.

그런데 바라바예수, 이 세상의 혈육상의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원하는 구원, 그게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상황,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구원입니다.
향상과 개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혈육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과 자손들에게 원하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여망, 이 세상이라는 경계 안에서 이 지구 위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 안에서의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여망을 담은 이름이 바라바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향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구원해주기를 바란다, 이 바라바예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형통하여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는 바라바예수예요, 강도 살인자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사랑할만한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

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바라바예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 바라바예수를 선택함에 강도를 당함이 있는 이유는 진짜 좋은 천국을 강도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그 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한다고 누가 그래요?
교회 안에 바라바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원하는 그런 구원, 믿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을 자식에게 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강도 바라바를 믿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도에게 당하는 신앙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가 나를 이 세상을 좋아해서 묶여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인지, 이 땅에서 더 나은 상태를 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바라바예수인지 명확하게 진단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생활을 했고 참으로 오랜 시간 바라바예수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라바예수를 선택하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중단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